

“박성광 감독 패기에 출연 결정”

영화 ‘웅남이’ 배우 박성웅
꿈에서 사람 된 쌍둥이 역할
“가족에 느낄 수 있는 작품”

“성광이가 갑자기 술 먹다가 ‘영화감독이 꿈입니다. 제가 꼭 시나리오 써서 형님한테 꼭 드리겠습니다’ 하더라고요. 술 먹고서 무슨 얘기를 못 해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는데, 그게 현실이 됐죠.”

박성광 감독의 첫 상업장편 ‘웅남이’는 시나리오 집필 단계부터 배우 박성웅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졌다. 주인공의 이름이자 제목인 ‘웅남이’의 ‘웅’도 박성웅의 이름에서 따왔다.

지난 20일 종로구 소격동 한 카페에서 만난 박성웅은 캐스팅 제안을 받았을 당시 “10여년 전 그 친구(박성광 감독)의 패기가 기억났다”고 회상했다.

“처음 대본은 매우 부족했지만, 제가 거부하면 바로 없어질 영화 같아서 ‘같이 한 번 고쳐보자’고 했어요. 게다가 투자를 받았대요. 돈이 아깝잖아요. 잘 고쳐서 만들면 되니까 ‘같이 가자. 어떻게든 만들어보자’ 했죠. 결정하기는 힘들었어요. 그래도 저는 항상 최선을 다할 거니까. 그런 자신감이 있었고, 성광이가 친한 동생이니까 데뷔도 시켜주고 싶었고요.”

‘웅남이’는 100일간 마늘과 썩을 먹고 사람이 된 달걀곰 형제 이야기다. 박성웅은 1인 2역을 맡아 웅남이와 웅복이를 모두 연기했다.

두 캐릭터는 쌍둥이로 태어났지만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란 끝에 경찰과 국제범죄조직 이인



배우 박성웅 /웅남이문화산업전문화사·CJ CGV 제공

자로 만나 대립한다.

‘웅남이’를 연출한 박성광 감독은 대중에게 코미디언으로 친숙하다.

박 감독은 이 때문에 자신에게 씌워진 선입견과 편견에 맞서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고 밝힌 바 있다.

박성웅은 “저는 편견은 없었다”면서 “성광이가 영화감독이 된다고 했었을 때도 그냥 작품으로 증명하면 된다고 조언했다”고 말했다.

“편견이 있더라도 우리는 결과물로 승부를

보면 되는 거니까요. 관객들한테 ‘개그맨 출신 영화감독인데 생각보다 잘하네?’ 이런 얘기를 들으면 되잖아요. 신인 감독은 현장에서 배우들이 놀 수 있도록 명석을 잘 깔아주는 게 중요한 것 같은데, 그런 면에서 박성광은 영리한 감독이었어요.”

박성웅은 “‘웅남이’는 가족애를 느낄 수 있는 작품”이라며 “‘박성웅한테 저런 모습도 있구나’ 하면서 편안하게 웃다 가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다.

SBS ‘꽃선비 열애사’ 시청률 4.4%로 출발

청춘 배우들의 풋풋한 시너지

풋풋한 청춘 배우들의 힘이 시너지를 만들어내는 퓨전 사극 ‘꽃선비 열애사’가 4%대 시청률로 출발했다.

21일 시청률 조사회사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전날 밤 10시 방송된 SBS ‘꽃선비 열애사’ 첫회 시청률은 4.4%로 집계됐다.

첫 회에서는 객주 이화원의 주인 윤단오(신예은 분)와 꽃선비 3인방이라 불리는 하숙생 강산(려운), 김시열(강훈), 정유하(정건주)의 첫 만남이 그려졌다.

세 명의 남자 주인공은 각자 다른 매력을 선보였다.

강산은 산적 때를 혼자 맨손으로 때려눕히며 강한 카리스마를 선보였고, 김시열은 능청스러우면서도 친오빠처럼 윤단오를 챙기는 따뜻한 모습을 보여줬다. 정유하는 책을 가까이하는 고고한 선비의 면모를 갖춘 캐릭터다.



SBS ‘꽃선비 열애사’ /SBS 제공

당차고 발랄한 성격의 윤단오는 금세 꽃선비 3인방과 친해지고, 넷은 노름빔 때문에 부영각에 잡힌 정유하의 본가 몸종의 아이를 구해내기도 한다.

‘꽃선비 열애사’는 청춘들의 로맨스를 담아내는 동시에 추리극의 요소를 더해 긴장감을 끌어올리기도 했다.

권상우·김희원 한강경찰대 콤비 호흡

디즈니+ ‘한강’ 주연

배우 권상우와 김희원이 한강에서 벌어지는 각종 사건과 사고를 해결하는 한강경찰대 콤비로 호흡을 맞춘다.

21일 디즈니+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권상우·김희원 주연의 오리지널 드라마 ‘한강’이 공개된다.

‘한강’은 한강을 지키는 한강경찰대가, 한강을 둘러싼 범죄에 휘말리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다.

권상우는 정의감 넘치는 다혈질 한강경찰대 한두진 역을, 김희원은 한두진과 정반대 성향을 가진 동료 이준석 역을 맡았다.

권상우와 김희원이 한 작품에 함께 출연하는 건 영화 ‘신의 한 수: 귀수편’ (2019)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한강 경찰대원으로는 배우 배다희와 신현승



권상우(왼쪽)와 김희원 /각 소속사 제공

이 함께하며, 이상이는 극에 긴장감을 더하는 인물인 고기석을 연기한다.

제작진은 “레포트를 즐기고, 휴식을 안겨주는 한강에서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한강경찰대 모습과 우리가 알지 못했던 한강이라는 공간의 다양한 볼거리를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가왕’ 조용필 5월 잠실주경기장 단독 콘서트

리모델링 전 마지막 공연

‘가왕’ 조용필이 5월 13일 서울 잠실종합운동장 올림픽주경기장에서 단독 콘서트 ‘2023 조용필&위대한탄생 콘서트’를 연다고 공연기획사 인사이트엔터테인먼트가 21일 밝혔다.

조용필이 잠실주경기장에서 공연을 여는 것은 지난 2018년 데뷔 50주년 콘서트 이후 5년 만이다.

1984년 문을 연 주경기장은 1986년 서울 아시안 게임과 1988년 서울 올림픽의 무대로 5만 명 이상 관객을 들일 수 있어 가수들에게는 ‘꿈의 무대’로 불린다.

조용필은 지난 2003년 데뷔 35주년 기념 공

연으로 주경기장에서 최초로 콘서트를 연 솔로 가수로 기록됐다. 그는 이후 20년 간 이곳에서 일곱 차례 공연을 열어 전석 매진시키는 국내 유일무이한 기록을 수립했다.

특히 주경기장이 6월부터 리모델링 공사를 앞두고 있어 이번 조용필 콘서트는 기존 경기장에서의 마지막 공연이 될 예정이다.

인사이드는 “‘굿바이 서울올림픽주경기장’이 될 이번 공연은 세대를 관통하는 조용필의 명곡과 함께 상징적인 공간을 기억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조용필은 지난해 ‘찰나’와 ‘세레게티처럼’이라는 신곡 2곡을 공개하고 4년 만에 단독 콘서트를 열어 예매 30분 만에 4만석 전석을 매진시킨 바 있다.



‘가왕’ 조용필 /인사이트엔터테인먼트 제공

※이 프로그램은 방송국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SBS	EBS
6:00 KBS뉴스광장 7:50 인간극장 8:25 아침마당 9:30 KBS뉴스 10:00 세계물의날 특별 생방송 11:00 세상을 건다	6:00 걸어서 세계속으로 7:00 해 불만인 아침 1부 8:05 해 불만인 아침 2부 9:00 KBS 아침 뉴스타임 9:20 내눈에 콩깍지 10:00 인간극장 스페셜 10:40 지구촌 뉴스 11:00 오아시스	6:00 뉴스투데이 1부 6:25 뉴스투데이 2부 7:50 매너의 게임 8:30 생방송 오늘 아침 9:45 기분 좋은 날 10:45 뽀빠리 11:15 푸르기 식사교실 11:45 프린세스 바리	6:00 모닝와이드 1부 6:25 모닝와이드 2부 7:40 모닝와이드 3부 8:40 맨 인 블랙박스 8:50 좋은아침 9:55 SBS 10 뉴스 10:00 살맛나는 오늘 11:00 애니컬러 11:30 인생 자두야	6:10 세계테마기행 7:00 뽀빠리 뽀로로 7:15 하프와 친구들 7:45 열마 개투리 8:00 당동명 유치원 8:20 미니특공대 브이레인저스 9:05 최고다! 호기심 딱지 9:20 시뮬 10:10 한국의 둘레길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1:20 세계테마기행 12:00 EBS 뉴스12 12:10 극한직업 1:00 글로벌 아빠 찾아 삼만리 2:45 한국의 둘레길 3:35 푸르기 천사들 4:05 영아 스토리 타임 4:15 페파피그 5:00 EBS 뉴스 6:00 뽀빠리 뽀로로 7:00 순간 포착, 아생 7:30 한국의 둘레길 7:50 건축탐구 집 8:40 세계테마기행 9:30 한국기행 9:50 EBS 다큐프라임 10:45 인간과 바다 11:55 클래식
12:00 KBS뉴스12 1:00 아마도 마지막 존재 1:50 생활의 발견 스페셜 2:00 KBS뉴스 2:10 열린채널 3:20 팔도밥상 4:00 시사간전 5:00 KBS뉴스5 5:30 동물의 왕국	12:15 생활의 발견 스페셜 12:25 홍길동전 1:5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3:00 KBS 뉴스타임 3:10 두리둥실 몽개공화국3 3:30 TV 유치원 4:00 신상출시 편스토랑 5:00 내눈에 콩깍지 5:15 소스라치 5:30 골짜기 영화가 좋다 5:50 통합뉴스룸ET	12:15 12 MBC 뉴스 12:25 일타강사 스페셜 1:20 글로벌 동물뉴스 1:55 2시 뉴스의전 3:55 기분 좋은 날 4:55 5 MBC뉴스 5:10 PD수첩	12:00 SBS 12뉴스 12:50 꽃선비 열애사 2:00 뉴스브라더 4:00 2023 장보고 열전 5:00 SBS 오뉴스 5:50 골 때리는 그녀들	
6:00 6시 내고향 7:00 KBS뉴스7 7:40 일꾼의 탄생 8:30 내눈에 콩깍지 9:00 KBS뉴스9 10:00 생로병사의 비밀 10:50 더 라이브 11:30 KBS뉴스라인	6:30 2TV 생생정보 7:50 비밀의 여자 8:30 옥탑방의 문제아들 9:50 걸어서 환상 속으로 10:50 9층 시사극 11:35 세상을 모든 다큐	6:05 생방송 오늘 저녁 7:05 매너의 게임 7:40 MBC 뉴스데스크 9:00 일타강사 10:30 라디오스타	6:50 생방송 투데이 7:30 SBS 8 뉴스 9:00 골 때리는 그녀들 10:40 편먹고 공치리5	

오늘의 운세		3월 22일 (음력 2월 1일)			
‘소원’ 연서연 선생 제공 010-5915-6875 ysy_wish@daum.net					
 子	48년생 아니다 생각되면 표현하라. 60년생 당당하게 처신하라. 72년생 새로운 인연과의 관계를 소중하게 여겨라.	 辰	52년생 뒤돌아봐야 지난 일이다. 64년생 갈등으로 하루를 보낸다. 76년생 혼자서 모든 일 다 할 수는 없다. 88년생 겉모습으로 사람을 평가하지 마라.	 申	44년생 정신적인 불안감은 사라진다. 56년생 자신감으로 확신을 가지고 추진하라. 68년생 아낌없이 내주어라. 80년생 의심하지 말고 묵묵히 나아가라.
84년생 원칙대로 하라.				년생 의심하지 말고 묵묵히 나아가라.	
 丑	49년생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 61년생 부귀영화가 눈앞에 있다. 73년생 가족이 우선이다. 85년생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정하라.	 巳	41년생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도 곱다. 53년생 다 된 밥에 재 뿌린다. 65년생 모진 사람 옆에 있다가 벼락 맞는다.	 酉	45년생 공허한 마음만 남으니 언행 조심하라. 57년생 뿌린 만큼 풍성하게 거둔다. 69년생 급한 마음이 실수로 이어진다. 81년생 다툼은 피하고 보자.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정하라.		77년생 수고는 많아도 실속은 없다.		다. 81년생 다툼은 피하고 보자.	
 寅	50년생 지나친 사랑은 오히려 득이 된다. 62년생 중심 잡고 옳고 그름을 따지지 마라. 74년생 진실은 언젠고 밝혀지게 되어있다. 86년생 웃으면 복이 온다.	 午	42년생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 54년생 남의 말도 귀 기울여 들어야 한다. 66년생 절대 잘난척 하지 마라. 78년생 하나 주고 둘을 얻는다.	 戌	46년생 내가 주인공이 되는 하루다. 58년생 결정해야 할 일은 미루지 마라. 70년생 시비 생기기 침착하라. 82년생 모르는 척 내버려 두라.
되여있다. 86년생 웃으면 복이 온다.		나 주고 둘을 얻는다.		모르는 척 내버려 두라.	
 卯	51년생 공허한 마음 달랠 길 없다. 63년생 상대방을 존중해야 한다. 75년생 일상생활에서 벗어나 여행을 떠나라.	 未	43년생 한발 양보하라. 55년생 신중하고 냉정하게 판단하라. 67년생 부장부수하니 가정이 평안하다. 79년생 충분히 하게 극복해 나간다.	 亥	47년생 부담스러운 부탁은 거절해라. 59년생 손해 보는 장사는 하지 마라. 71년생 융통성이 필요한 하루다. 83년생 적성에 맞는 운동을 해라.
87년생 웬만하면 참는 것이 좋다.		하게 극복해 나간다.		적성에 맞는 운동을 해라.	